

한·중·일 현대 예술작품 '한눈에'

전주한벽문화관, 청소년 진로 교육 운영

전주문화재단, 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젝트 일환 '현대미술교류전 <和/Harmony/화>展'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대미술교류전 <和/Harmony/화>展'을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주 팔복예술공장과 한벽문화관에서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전주시가 주최하며, 전주문화재단이 주관한다. 개회식은 14일 15시부터 팔복예술공장 쉼터카페에서 진행된다.

13일 재단에 따르면 <和/Harmony/화>展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현대적인 예술작품을 한데 모은 특별한 전시회로, 관객들은 시각적 조화와 화합이 만들어 낸 '함께-여기에-있음'을 경험하고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전시는 한국·전주, 중국·청두, 메이저우, 일본·시즈오카 등 네 도시 현대미술 작가 11명의 작품을 통해 시각적 조화와 화합을 담아 사회, 문화, 예술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한다. 또한 '함께 보고, 느끼고, 공유한다'는 주제 아래, 예술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성과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들 작가들은 이번 전시에 각자의 지역과



'현대미술교류전 <和/Harmony/화>展' 포스터

상황, 세대의 시대성을 드러내며 삶에 대한 주제로 작업하지만, 자신들이 존재하는 국가, 지역, 가족,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보편성을 담아내는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주문화재단의 ESG 경영에 실천하는 첫 번째 전시로, 기후위기 대응에 한발 다가서기 위해 최소한의 환경조성을 지향했으며, 전시 리플렛 대신 QR코드를 통해 전시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전시정보는 웹사이트(eaac-jeonju-hw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2023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으로 다시금 연대와 교류의 물꼬를 트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번 한중일 교류전시 <和/Harmony/화>를 통해 현대미술의 변주가 주는 매력은 물론, 동아시아 현대미술의 현주소도 가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의 관람료는 무료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방문으로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팔복예술공장은 매주 월요일, 한벽문화관은 매주 일·월요일에는 휴관이다.

특히 작품관람과 함께 전시설명이 듣고 싶다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팔복예술공장 창작기획팀(063-212-8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문화예술 직업군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전주한벽문화관(관장 김철민)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분야 진로 체험을 돕는 '내 일(業)을 꿈꾸는 내일(明日):시즌2'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코기카)가 주관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다. 이에 전주한벽문화관은 진로체험형 교육인 '내 일(業)을 꿈꾸는 내일(明日):시즌2'로 해당 사업에 선정, 지역 내 공연 기획과 공연분야의 전문 기술 운영에 관심있는 중·고등학생을 모집했다.

시즌2는 청소년이 꿈꾸는 '공연장' 운영이라는 직업 세계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궁극적으로는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공연장이 운영되는 기술적 원리를 이해하고, 조명·음향을 비롯한 기술을 습득하는 등 공연이 완성되는 전반에 대한 실습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실제 공연을 진행하며 배우는 공연 기술 실무, 공연 특효 장비 활용, 그리고 무대 미술, 무대 디자인을 간접 경험하는 키트를 통한 무대 미니어처 제작과 공연 연출 및 분장까지 총 10차시다. 해당 교육은 전주한벽문화관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 초빙 및 한벽공연장 전문 감독이 직접 교육한다. /장은성 기자



특히 올해는 외부교육인 공연장 비교체험을 통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직접 답사해봄으로써 중·대형 공연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 등 미래의 공연관련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시각을 선사할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각 차시별로 조명과 음향 교육, 무대 미니어처 제작과 공연 연출, 분장 배우기 등의 수업으로 운영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박물관, 한국지역대학연합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진로 학습 워크숍 성료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지난 6~7일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서 열린 '한국지역대학연합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진로 학습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

전주대 박물관과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재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 워크숍은 졸업 후 박물관 연구직에 대한 취업 및 진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 운영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원도 강릉지역 워크숍에서 김권구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박물관과 지역사회'

라는 강연을 통해 "대학박물관을 포함한 박물관들이 자기 지역의 역사교육센터 혹은 관광중심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발전에도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박물관 큐레이터는 전시, 수집, 학술연구, 교육 등을 넘어 다양한 분야까지도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연 외에도 이상수 가톨릭관동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경포천과 경포호', 최원호 문화융합기술연구소장의 '3D 디지털 구축을 통한 문화재 보존과 활용', 박현수 전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의 '박물관 큐레이터의 역할' 등의 발제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워크숍을 기획한 박현수 실장은 "전주대 박물관 워크숍을 통해 역사문화콘텐츠학과 학생들이 졸업 후 관련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도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남원항공우주천문대, 18일부터 '주·야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는 남원항공우주천문대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은 가족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야간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야간 패키지란, 주간에 천문대를 방문하는 고객에 한해 야간에도 무료로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당일 발권지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항공우주천문대(063-620-8987)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는 백두대간 지리산 자락

에 위치한 동부권 대표적인 천문과학관으로 주요시설로는 600mm 대형망원경이 있는 주관측실과 광활한 우주의 신비로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4D천체투영관, 최신 탑승형 VR 체험 3종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인과 어린이 구분 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가족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중간 여유시간에는 바리스타 로봇이 커피 3종, 주스 2종, 소프트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필봉농악 교사연수 참여자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20일까지 임실필봉농악 교사연수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르떼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13일 재단에 따르면 작년에 처음 진행한 이 사업은 농악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현직 교원들이 농악을 직접 체험하고 실습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전통예술을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연수대상은 초·중등교사 25명이며, 숙박형 연수프로그램으로 28~30일까지 임실 필봉문화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 곳곳서 즐기는 공연 바캉스

전북문화관광재단, 다채로운 공연·전시 등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여름 휴가철 전라북도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 바캉스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똥-서동의 꽃' 여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공연을 관람하면 40%(R석 18,000원, S석 12,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전북예술회관에서는 14~20일까지 기스타 1실에서 '전주서각회 제5회 회원전'을, 21~27일까지 차오름 1실에서 '별 여섯 번째 모악목연전'을 연다.

전주시에서는 린파이브가 댄스뮤지컬 '전주비밀밤-그 맛(味)의 시작' '조선 셰프 한상궁'을 7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전주한벽문화관 야외공연장에서 진행한다. 우천 시에는 전주한벽문화관 실내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익산시에서는 (사)세종전통예술진흥회 전북지부가 국악뮤지컬 '허균, 익산에 날아들다:사람, 꽃 피우다'를 7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함라한옥체험단지에서 진행하며, 우천 시 함라한옥체험단지 내 문화체험관에서 펼쳐진다.

임실군에서는 임실필봉농악보존회가 K관 곳곳이 춤추는 상회 12 '동행'을 7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임실필봉문화촌 취락원에서 선보이며, 우천 시 임실필봉문화촌 대동관에서 진행한다.

고창군에서는 (사)고창농악보존회가 고창농악국악뮤지컬 '이팝:소리꽃'을 7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신재효관소리공원에서 진행하며, 우천 시 동리국악당 실내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부안군에서는 포스댄스컴퍼니가 난버벌 퍼포먼스 '도깨비 당산'을 7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부안영상테마파크에서 진행하며, 우천 시에는 부안예술회관에서 볼 수 있다.

예술회관운영팀 관계자는 "무더위를 피해 전북을 찾는 관람객들이 조금이나마 즐겁게 지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